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

정책제안주제	학교 옥상 관련 규정 제정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교육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문화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인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소년 안전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안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쉼의 공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 옥상 공간 조성 - 현재 학교 옥상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 제정 필요 - 학교 옥상 개방 시 안전 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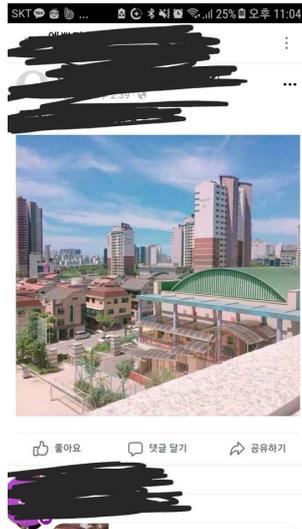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제안 배경 및 현황]

학교 시설물은 학생들의 편의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 시설물에는 그에 대한 안전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엄연히 학교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장소가 있다. 바로 학교 옥상이다.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옥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한 근거가 될 규정 자체가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는 옥상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고,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자살사고나 안전사고 또는 탈선행위가 발생한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 한 중학교의 옥상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해당 학교의 옥상은 출입금지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입금지구역인 옥상에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SNS 상에 올린 중학교 옥상에서 찍은 인증샷[사진출처: 페이스북]>

해당 사례를 통해 옥상을 무조건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비교적 손쉽게 옥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옥상을 개방한 학교들은 학교 옥상을 천체관측이나 학생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엽고등학교가 그 예이다. 주엽고등학교는 옥상을 개방하여 천체관측동아리 활동이나 사격부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엽고등학교 천체관측동아리가 찍은 옥상에서의 야경 [사진출처: Deskgram]>

더 이상 근거 없이 무조건 학교 옥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사건사고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 옥상에 대한 안전 규정을 제정하고, 학교 옥상을 학교 시설물로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바이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정책 제안] 청소년들의 쉼 공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 옥상 공간 조성

고양시의 중·고등학생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다. 뻘뻘한 하루교과일정 중에 그나마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지만, 교실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답답하다.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쉼의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소로 학교 옥상을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제안을 한다.

학교 옥상 공간의 테마는 학교마다의 재량을 가지고,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쉼의 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 스트레스 해소 공간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이때, 공간 조성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협력하여 함께 기획, 구성해 나가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옥상 공간을 조성하고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한 학교 옥상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 학교 옥상도 학교 시설물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개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하다. 규정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옥상

가. 학교 옥상은 학교 시설물의 일부이므로 학생들의 교육 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방하도록 한다. 단, 학교 옥상에 태양광 전지판 등 주요시설이나 대형 환풍구 등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옥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 학교 옥상을 개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울타리의 높이는 최소 170cm 이상으로 한다.
2. 옥상 입구, 활동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비행, 안전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3. 옥상 내에 면적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기를 배치한다.

4. 옥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범치는 학교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5.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일부)에는 모두에게 개방한다.
6. 옥상에서 화기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학교 옥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항시 자물쇠 또는 도어락으로 잠가 두어야 한다.
2. 옥상으로 통하는 문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두어야 한다.
3. 학교의 모든 교사가 옥상의 자물쇠 열쇠 위치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숙지하여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한다.

라. 학교 옥상은 다른 학교 시설물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1. 학생들의 문화적·교육적 활동 범위 증가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도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 옥상을 개방하게 된다면 이미 학교 옥상을 개방한 학교들처럼 천체관측 등의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동아리 활동 이외에도 야외 교육 장소로 사용할 수 있어 교육적 활동 범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자살률 감소 및 학업 성취도 증가

한국 교육 과정 특성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학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 기준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2.6%에 달한다.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학교 옥상을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 감소는 청소년 자살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좀 더 가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여 학업성취도가 증가할 것이다.

3. 사건·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 용이

학교 옥상하면 자살 사고나 각종 폭력 사건이 연상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없는 공간 취급하여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옥상에 대한 규정이 생길 경우 옥상 감독 선생님이나 CCTV 등의 도입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내 사건·사고가 줄어들 것이다.